

너의 뒤

고층아파트 난간.

난간에 올라선 남자가 아찔한 높이를 내려다본다.
그는 곧 떨어져 죽을 예정이다.
그가 내려다보는 세상은 마냥 평화로워 보인다.
슈퍼에서 수박을 고르는 아줌마가 눈에 들어오는데...
곧 세상을 등질 그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?

확실히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
머리부터 떨어지는 자세를 몇 번이나 취해 보는 남자.
마침내 결심했는지 난간으로 돌진하는데
그 와중에 전화벨이 울린다.
어어...
얼떨결에 전화기를 꺼내들다 난간에서 발을 헛디디는 남자,
전화기를 손에 든 채로 고꾸라지듯 공중으로 떨어지고 만다.
고공에서 머리부터 떨어져 가는 남자.
어쨌든 성공이다! 이제 죽을 일만 남았지만...
생애 마지막 전화를 받기로 한 남자.

일수남 (f): (받자마자 속사포처럼 쏘아대는)

야, 이 새끼야!

돈 안 갚으면 죽는다!!

추락남: (추락하며 무표정한 얼굴로 듣는)

일수남 (f): 거기, 어디야!?

추락남: (섬뜩하게 씨익 웃으며)

너의 뒤....

그 말을 뒤로

아스팔트로 전해지는 쿵- 하는 강력한 충격음!!!

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던 아줌마가 경악을 한다.

까악-

아줌마가 떨어뜨린 수박이 두 조각으로 찌- 갈라지며

잘 익은 수박의 빨간 속살들이 아스팔트 주변으로 혈흔처럼 비산된다.

아스팔트 위를 나뒹구는 수박 조각들이

추락한 남자의 머리가 박살 난 것을 연상시킨다.

좁은 방구석.

책상 앞에 앉아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일수남.

일수남: (충격음에 놀라) 여..여보세요!??

이미 전화는 끊겨져 있다.

일수남이 얼른 다시 전화를 건다.

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메시지만 들려온다.

일수남: 이 새끼... 또 안 받네.

아주 내 손에 잡히면 죽을 줄 알아...

펼쳐 놓은 장부에서 여러 사람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그리고 대출 금액들이 보인다.

추락한 남자로 보이는 이름 옆에 1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.

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피는 일수남.

일수남: (담배 연기 내뿜으며) 휴...

(좀 전의 상황을 떠올리고 있는데) ...

순간 일수남의 등 뒤로 방금 추락한 남자가 장승처럼 서 있다.

온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게 마치 강시 같다.

연신 차가운 호흡을 내뿜으며 말없이 서 있는 추락한 남자.

깨진 이마에서 피가 여러 가닥으로 흘러내린다.

자기 뒤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일수남...

일수남: 근데, 이 새끼...

어디라고 그랬지.....??

가만히 서 있던 추락한 남자가 드디어 서늘 피런 입술을 뺏는다.

추락남: **너**
익...

